

아카이브

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Archive of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약자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행동단체

International Action Group Against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f the weak, such as women
and children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과거, 미래, 현재

여성운동 위키

십대여성인권센터 위키

Wiki of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아동·청소년/인터넷/성매매 방지를 위한 통합적 지원단체
Integrated Support Center to prevent youth·internet·sex trafficking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 운동 과정



(03370)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십대여성인권센터

T. 02-6348-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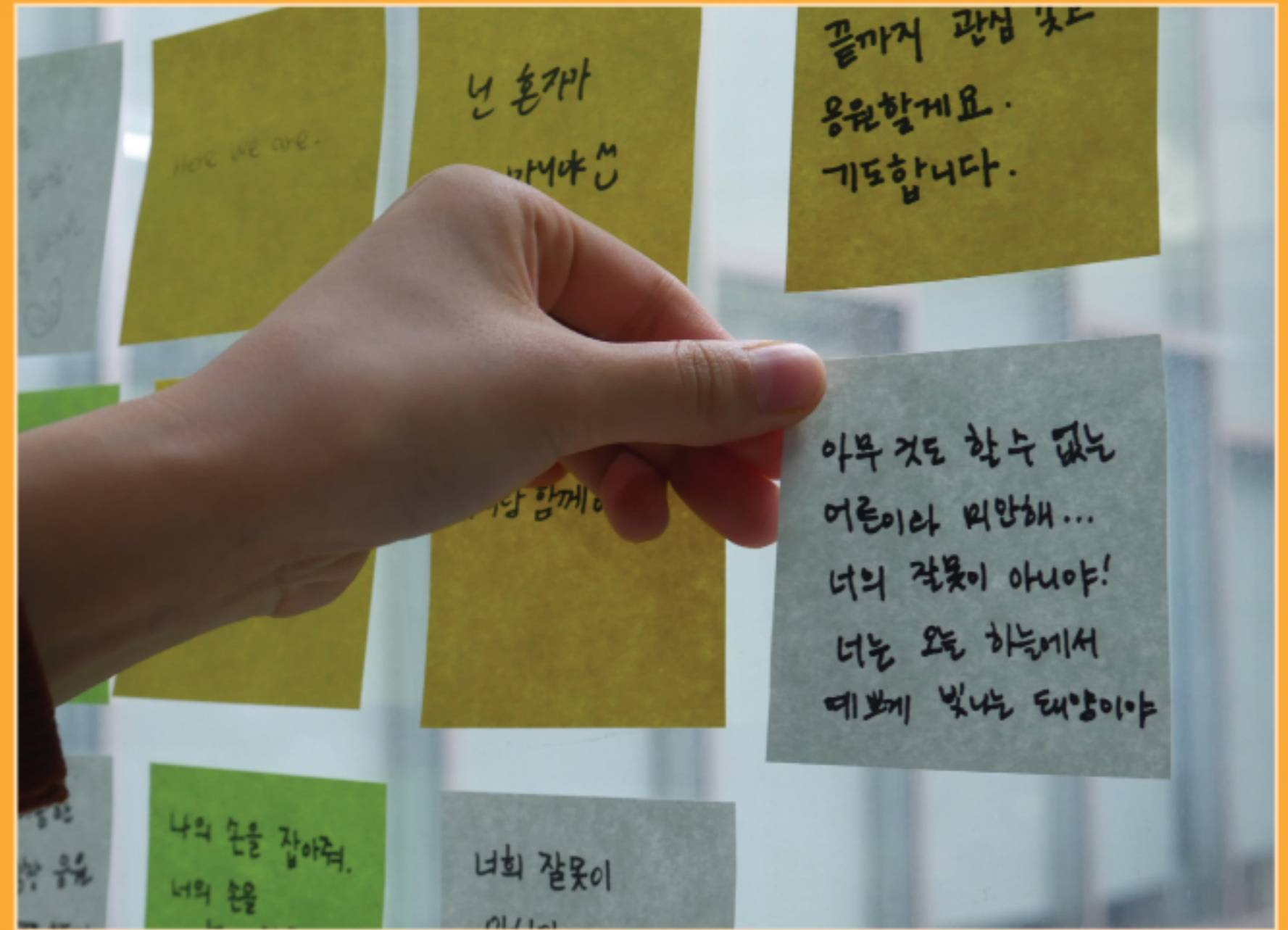
E. teen-up.com@daum.net

H. http://www.teen-up.com/Default.asp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카이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여성과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국제적 행동단체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이슈생산과 연대활동을 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소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동을 통하여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이 포함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10년 활동 아카이빙을 진행합니다. “성매매는 성착취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의 또 다른 아카이빙도 함께 합니다. 단순히 기록을 집적하는 방식이 아닌 십대여성인권센터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를 유지하여 아시아의 정보센터 기능을 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과정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3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사이버 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성매매 피해 조기예방, 성구매자와 알선·조장 세력에 대한 경고와 신고 활동을 하는 사이버도래 상담사업(2022년 운영 종료)과 '아청법' 개정 전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했던 정부 지원 사업이었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업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사업 종료)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소년법 상 처벌이 가능했고 피해지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심화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신설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을 통해 현 우리 상담소 전신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모형 SNS(Stop aNd Start)을 3년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 최초 아동 청소년 특화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0년 '아청법'이 개정되어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피해 지원 체계가 신설되어 2021년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문제점을 인지 후, 2013년 '아청법' 연구 모임 운영을 시작하여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 지원단은 '아청법' 개정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 7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반성매매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60여 명 참석하여 '아청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아청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15년 8월, '아청법' 일부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통합법안) 통과되어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못합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1월,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체와 사무국을 맡아 378개의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전국민이 공분을 사면서 계류되어 있던 관련 법안들이 2020년 4월 30일 통과되었고 '아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 회의를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개정되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시기에 맞춰 “성착취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아청법'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관행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확인이 되어 2021년 11월 30일,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정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시아 정보센터 기능 수행과 패러다임의 전환 <성매매는 '성착취'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성매매는 성불평등한 사회의 오래된 관행과 왜곡된 인식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성매매는 성착취다.” 인 이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모든 활동들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운동이었다는 것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라는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성착취”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활동들에도 더욱 힘을 실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여 보호와 지원의 공백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결의 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각 국가들과 교류 중에 있습니다.